

신선한 창작물 ‘풍요’…지역 담은 콘텐츠 ‘빈약’

문화전당
개관 1년

☎ 새롭게 선보인 전시·공연

33개 전시·82개 공연·97개 교육

어린이 공연 불모지 광주에 새바람

광주 역사·정체성 담은 작품 없어

예술극장 제작 19편 40개국 해외투어

‘율리시스의 귀환’ 등 상연작 호평

지역예술인 협업·시즌제 도입 필요



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선보인 윌리엄 켄트리지의 오페라 ‘율리시스의 귀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개관 이래 예술극장과 창조원 등 공연·전시 공간에서 새로운 스타일의 공연과 전시, 창작 콘텐츠를 선보여 관객들에게 신선함을 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광주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아낼 창작 시스템이 없다는 점과 지역 예술인들과 협업에는 아쉬움을 남겼다.

◇창조원·정보원·어린이 문화원 = 2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5일 개관 이래 최근까지 예술극장, 창조원, 정보원, 어린이 문화원 등에서 모두 33개 전시·82개 공연·97개 교육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창조원은 창·제작 시스템 구현의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창조원 1관에서 선보인 ‘라이트 배리어’(Light Barrier)는 연무가 분사된 허공에 3차원의 형상을 그려낸 작품으로 눈길을 끌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미디어 작가 로지 이케다가 이진수를 활용해 만든 미디어 아트 작품 ‘테스트 패턴 no.8’(Test Pattern no.8)도 이채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외 기관과 연계해 문화전당 정보원 등에서 열린 타고르전, 인도 영화제 등도 호평받았다.

어린이 문화원은 문화전당 전체 관람객 260만여명 가운데 21%에 달하는 55만여명이 다녀가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어린이문화원은 어린이극 ‘갈갈나무’, ‘행성에서 만난 미생’ 등을 자체 제작, 어린이 공연문화 불모지 광주에 새 바람을 불어넣었다. 이 연극은 2016년 한국문화예술평의회 국립기관 우수공연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문화전당은 2016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전시공간을 제공, 지역 문화기관간 바람직한 협업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비엔날레 관객 증가의 한 요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문화전당 창작물 중에는 광주문화산업에 기여하는 뚜렷한 결과물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광주의 5대 전략산업(첨단영상, 게임, 음악, 에듀테인먼트, 공예·디자인)과 직결된 콘텐츠가 없다는 얘기다.

광주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문화전당 공연·전시물 창작, 제작 단계에서 녹여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는 “단순히 문화전당 창·제작에 지역 작가 몇 명, 작품 몇점이 반영되는 나를 따지는 것은 단견”이라며 “광주의 정체성과 역사를 담기 위해 창작, 제작 기획단계에서 지역 문화예술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전당 전시 프로그램이 관람 수요를 꾸준히 창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기획 전시 프로그램들이 길게는 2년, 짧게는 6개월이어서 새로움을 원하는 관객 수요를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술극장 = 예술극장 상연작들은 지금까지 지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스타일의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신선함을 전했다. “너무 난해하다” 평도 동시에 받는 등 의견이 많이 엇갈렸다.

개관 후 예술극장에서 공연된 프로그램은 지난해 9월 개관 페스티벌과 2015~2016 시즌을 포함해 약 70여편에 달한다. 이중 윌리엄 켄트리지의 ‘율리시스의 귀환’, 아피차퐁의 ‘열병의 방’ 등이 관객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안기며 호평을 받았다. 또 호추니엔의 ‘만마리의 호랑이’ 등 예술극장이 제작(공동제작 포함)한 19개 작품은 흥피두 센터, 베를린 민중극장 등 40여개 국에서 해외 투어를 진행했거나 예정돼 있는 등 ‘창·제작 극장’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작품들의 경우 메시지 전달 등이 미약해

관객을 버겁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 관객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이지 못했다.

올 초 전당 조직이 개편되면서 ‘예술감독’이 없어진 공연사업본부장이 어린이문화원, 창조원 등 모든 기관의 공연예술 분야를 총괄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예술극장 프로그램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독일과 공동제작한 ‘뱀·이방인 에피제니’ 등 의미있는 작품들이 꾸준히 무대에 올랐고, 파리 상젤리즈 오케스트라 공연 등도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본부장이 3월 부임한 탓에 극장의 비전 등을 아우르는 ‘큰그림’을 그리면서 공연을 제작·선정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해 전반적으로 통일성 있는 라인업을 선보이지 못한 점은 아쉽다. 또 초창기보다 대중성은 다소 높아졌지만 “꼭 보고 싶다”고 느낀 만한 작품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으며 굳이 전당에서 선보이지 않아도 될 작품들도 보였다.

초창기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된 지역 예술인들과의 협업은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음악극 ‘홀스도메르’를 비롯해 나름 협업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아쉽다.

무엇보다 ‘시즌제 도입’ 도입을 통해 극장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공연 애호가들과 시민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유명 극장들이 운영하는 ‘시즌제’는 극장의 비전을 담보하는 작품 제작을 미리 알리는 시스템이다. 또 올해 1주년 페스티벌 행사 ‘아시아를 위한 심포니’가 열릴 예정이기는 하지만 예술극장의 가장 큰 프로그램으로는 무게감이 떨어지는 듯해 아쉽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물망초발심’…홍윤진 가야금 공연

26일 광주전통문화관 서석당…첫 앨범도 발매

‘월드뮤직 그룹 루트머지’ 대표를 맡고 있는 가야금 연주자 홍윤진(사진)이 그녀의 가야금인생 ‘초심’을 주제로 한 공연과 음반을 동시에 선보인다.

홍씨는 오는 26일 오후 3시 광주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첫 개인 음반의 타이틀인 ‘물망초발심’을 주제로 관객과 만난다.

공연에는 홍씨를 비롯해 건반 김현화, 콘트라베이스 조종현, 드럼 황성훈, 가야금연주자 김성이, 재즈보컬 최강씨가 함께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초심’을 주제로 7개의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하늘을 날다’(박경훈 곡)는 넓은 하늘을 멋지게 날아가는 가야금소리를 상상하며 만든 상쾌한 곡이다.

또 이탈리아어로 ‘여행’을 뜻하는 ‘Viaggio’(김현화 곡)는 가야금연주자 로서의 행복함 즐거움 설레임을 두 대의 25현가야금으로 표현한 곡이며, ‘이화유를 뿌릴 제’(최진경 곡)는 계랑의 시조를 가사로 가야금기반의 발라드로 표현한 곡이다.



그밖에 그녀가 개발한 28현가야금 연주로 선보이는 ‘28현가야금을 위한 My Finger’s’(김호주 곡), 전라도 대표 아리랑 ‘진도아리랑 변주곡’(작곡 김현화 곡)은 다양한 형태의 변주와 기법을 25현가야금독주곡으로 선보인다.

특히 ‘최옥삼류 가야금산조’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콘트라베이스의 웅장한 선율로 재탄생시켰다.

‘2016 광주 음악 창작소 음반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돼 제작된 이번 음반은 25일 발매되며 음원사이트에서도 만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학과 졸업작품전

25일까지 조선대미술관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은 조선대 미술대학은 그동안 굵직한 미술인들을 배출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선배들의 열정을 물려받은 후배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졸업을 앞둔 회화학과 서양화전공 학생들이 ‘생각에서 그림까지’를 주제로 25일까지 조선대미술관에서 66회 졸업작품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학생 35명이 참여해 지난 4년간 노력을 집약한 작품 약 100점을 선보인다.

관주연씨는 평범한 방을 새롭게 해석한 ‘조합된 시간들’시리즈를 출품한다. 시간, 사물, 인물 배치, 빛 흐름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통해 스스로 시공간을 만들어보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오지인씨는 무표정한 사람을 통해 현대인의 공허함을 표현한 ‘blank’를 전시한다. 육초에 고개를 기댄 채 관람객을 응시하는



관주연 작 ‘조합된 시간’

등장인물들을 통해 마음 속 ‘여백’이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문의 062-230-7832. /김용희기자 kimyh@

황영성·박석규·송웅·박동민·박종수·신동원·박성현·전희진·정운태

원로작가 9인 특별전

기간: 2016. 10.11(화) ~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박물관갤러리

☎ 세계조각·장식박물관 ☎(062)222-0072 (예술의거리 서문입구)

DAEMYUNG RESORT

GRAND OPENING 2016. 6. 22

대명리조트 신규분양 회원모집

13번째 리조트! 쓸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산토리니풍의 하얀 쓸비치 호텔&리조트 삼척과 파란 동해바다~

황금빛 동화같은 전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척해수욕장에서 바라본 쓸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709실)

* 기존 신규회원 특별혜택 기간: 2년 / 분양권 일주일 내에 시 1억 6% 할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이번 신규회원 모집에 대한 분양 책자를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EQUESTRIAN	YACHT	GOLF	SKI
소노밸리채 송아말집	가제 미리나 베이	비발디파크 대명골프장(24홀)	리조트 및 4가지 유쾌시설
주말 20%, 주중 40%	주말 회원대우, 주중 50%	주말 50%, 주중 무료	무료
OCEAN WORLD	RESORT		
오션월드 및 아쿠아월드	가제 신규회원 특별혜택		
주말, 성수기 주중 50%	최상 직원 요금의 50%		
비수기 주중 무료			

전국 13개 지역 리조트 - 11월14일까지 2016년 12월31일까지 분양권

소노밸리채, 쓸비치, 가제, 미리나 베이, 비발디파크, 대명리조트 삼척, 대명리조트 부산, 대명리조트 광주, 대명리조트 대구, 대명리조트 서울, 대명리조트 제주, 대명리조트 가제 미리나, 대명리조트 아산, 대명리조트 고양

[패밀리/스키트 납입계좌] 예금주 (주)대명리조트삼척 ☎ 지점 계좌로 입금한 입금확인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1005-000-0697807 국민은행 614701-04-002581 신한은행 295-05-061967

분양문의(24시간 상담 가능) **062)714-2000**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대형 웨딩홀 준공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향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